

18~19세기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

함연자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Aesthetic Value of the Neoclassic Style in Eighteenth to Nineteenth Century Fashion

Youn-Ja Ha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Eui University

(2005. 4. 2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neoclassic style in eighteenth to nineteenth century fashion. Researching into philosophy and aesthetics in eighteenth to nineteenth centu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oclassic style in fashion is considered the clarity of form, the utility of function, and the sensuality combined with bo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larity of form is found in geometric form based on anatomical truth of the human body in relation with rational and scientific thoughts. The utility of function is found in simple and suitable construction considering purely practical purpose of dresses. The sensuality combined with body is found in natural silhouette dress alluding naked body in connection with Rousseau' naturalism.

Understanding aesthetic value of the neoclassic style will help to develop fashion designs associated with neoclassical forms.

Key words: neoclassic style(신고전주의 양식), the clarity of form(형식의 명료성), the utility of function(기능의 효율성), the sensuality combined with body(인체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

I. 서론

20세기 후반 패션분야에서는 시대의 사조와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이성을 부정하고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대한 해체와 변형적 사용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패션은 모순과 긴장을 강조하

는 추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급변하는 패션의 추세 속에서 보편타당하고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욕구도 여전히 존재함은 명백하며, 그러한 디자인을 위한 미학적 원천은 현재와 같이 혼란한 예술적 상황 속에서 순수한 본질과 이성적인 합리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최근 패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복고풍에서

발견된다. 즉, 과장과 왜곡으로 치달았던 바로크 양식을 극복하고 논리적이고 안정된 양식을 제공하였던 신고전주의 미학은 오늘날 혼돈과 무질서의 향방 속에서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실현시키는 길잡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와 미래의 패션에서 신고전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서 신고전주의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전주의가 대두되었던 18~19세기의 철학과 미학 사상을 중심으로 신고전주의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복식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토대로 복식에서 신고전주의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신고전주의의 미적 가치가 조형예술인 복식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타 조형예술 중 신고전주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그 안에 거(居)하는 특성으로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복식과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건축에 대한 고찰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복식에 대한 분석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한편, 인체가 직접 착용하는 복식만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시대의 건축과 복식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복식과 건축을 비교고찰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고전주의의 미적 가치를 도출한 시대적 범위는 신고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18세기 중엽부터 나폴레옹 제국의 붕괴로 문화적인 환경의 고전적인 취향이 점차로 힘을 잃어 가는 1820년까지로 한다.

II. 신고전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미적 특성

신고전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신고전주의의 전반적 미학 사상은 18세기의 계몽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18세기는 서양사에서 '철학의

세기'로 평가되는데, 왜냐하면 18세기의 계몽철학은 단순한 사유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포함한 모든 정신적 행위의 원천이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즉, 계몽철학의 근본경향과 주된 노력은 삶을 단순히 관조 내지 묘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자체를 형성하는 힘이 된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당대의 철학과 예술비평 간의 결합은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신고전주의의 미학사상은 18~19세기의 계몽철학과 관련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이성훈²⁾은 예술과 과학의 재생을 이룩한 르네상스 이래로 체계적 철학의 기본문제와 예술비평의 기본문제 간에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존재해 왔으나, 계몽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학과 비평의 상관관계를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었고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미학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이종훈³⁾도 계몽주의의 가치관을 예술 영역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19세기 계몽철학에 나타난 자연관, 역사관, 사회관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전주의 미학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연관

계몽주의시대 자연관의 형성은 17세기 R. Descartes와 I. Newton의 영향과 관련된다. Descartes는 철학 전체의 체계가 수학과 기하학의 진리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Newton은 자연의 신비를 명확히 밝혀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확고한 법칙이 의해 증명되는 '철학함의 규칙' 즉, 탐구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Newton 이후 과학적인 방법은 가장 타당성 있는 문제해결방법으로 채택되었고, 그가 물리세계에서 발견한 질서는 지적, 윤리적, 미적 세계에서도 추구되어야 했다.

이와 같이 계몽철학에서 '자연'의 개념을 '자연의 법칙'으로 보는 관점을 배경으로 신고전주의 예술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그려내는 작품을 '참되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⁴⁾ 바로 여기서 신고전주의 미학의 토대가 도출되는데 예술 영역에서도 보편적 지식의 이상에 도달하려면, 예술이 표명되는 다양하고 겉으로 보기에 이질적인 형식들을 단일한 원리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자연이 어떤 원리에 의해 지배되듯이, 그리고 이 원리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지식의 최고 과제이듯이 자연의 정확한 모방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에 대해서도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법칙들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당대의 예술가들은 단순한 주관적 상상의 세계와 연결되는 모든 끈들을 배제하고 단지 사물의 본성 속에서 발견해내는 순수 객관적 법칙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즉, 예술자체를 지배하는 법칙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그가 성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신고전주의 예술은 미 영역이 지니는 피상적인 예외성과 독특성을 배제하게 되었다. 법칙의 부정인 예외성은 참되지 못한 것이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진과 미 그리고 이성과 자연은 동일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즉, 하나의 동일한 질서가 단지 다른 측면에서 자연과학과 예술로 표현되는 것으로 과학과 마찬가지로 미학 이론도 엄격한 정확성의 이상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예술가들은 공상의 영역에 합리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엄격한 규칙과 형식을 도입하였고, 완전한 작품을 위해서 예술의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이 필수로 여겨졌다.⁵⁾

다시 말해 신고전주의 예술가의 과업은 개별자를 포괄하는 보편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에서 '보편자'는 본질적임, 근본적임, 전형적임, 특징적임, 표준적임, 이상적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⁶⁾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Sir J. Reynolds도 『예술에 관한 담화 (Discourses on Art)』(1778)에서 정식화되고 있다. "[화가의] 눈이 사물의 우연한 결합, 병적 변태, 변형 등을 그 보편적 특징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는 그 사물의 형태에 대하여 그 어떤

원형보다 더 완벽한 추상적 관념을 만들어 낸다."⁷⁾

즉, 신고전주의 예술가들에게 요구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처럼 자연을 추상하여 고찰하고 그 종(種)의 특성, 또는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예술가의 주관적 반응뿐만 아니라 우연적, 일시적이며 변화하기 쉬운 것을 모두 배제하고 본질적,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것만을 남기는 것이다. 확실하게 신고전주의 예술이 추구한 바는 R. de Piles이 『회화 원리 강의 (Cours de peinture par principes)』(1708)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사물에 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일차적'인 단순한 진리인 자연의 충실한 모방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술가가 완전한 것들만 선별하여 한데 '조합'한 '이차적'인 이상적 진리에 있는 것이다.⁸⁾ C. Batteux는 『예술론(Traite des beaux-arts, reduits a un meme principe)』(1746)에서 모든 예술의 근저에 놓이는 단일한 원리로서 자연으로부터 선별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을 상정하고 있으며⁹⁾, F. Hutcheson은 『미와 덕의 관념의 기원에 대하여(An i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rs of beauty and virtue)』(1725)에서 절대적 미는 '다양의 통일성(Uniformity in Variety)'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했다.¹⁰⁾

이상에서 가시적인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의 법칙이 밝혀질 수 있다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신념은 존재의 보편적 진리와 영속적인 타당성의 기준을 확립하는 일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으며, 이는 예술에서도 가변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묘사보다는 이성에 의한 불변의 '진리'를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예술은 Newton이 밝혀 낸 자연의 법칙과 같이 명확한 논리로 설명되는 '규칙에 따라 즐거움을 주는 것'¹¹⁾을 추구하게 되었으므로 객관적 법칙에 의한 미 즉, 균제, 질서, 통일성, 규칙성의 원리와 기하학적 형태를 근거로 이성의 명료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2. 역사관

17세기 까지 역사의 '진리'는 성서나 교회에 의해 우화 또는 신화로서 맹신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초의 근대 역사가인 Voltaire는 『관습의 일반사에 관한 소고 (Essay on the General History of Manners)』(1754)에서 역사의 변화를 진화(evolution)와 같은 것에 의해 점차적으로 일어나거나 인간의 힘과 의지의 직접적 결과인 혁명(revolution)에 의해 일어남을 함축함으로써 신화를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여러 시대에 걸쳐 환상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고지식함이 만들어 낸 모든 우화들을 선발하여 경멸했다. 또한 그는 기원의 신뢰성을 결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원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켰다.

Voltaire 이후 Rousseau, Montesquieu 등 백과전서파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합리적 논쟁이 오랜 신화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유럽 제도의 본질이 발전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원시 사회까지 추론된 이후로, 대중들은 연대기의 진화개념에 친숙하게 되었다. 역사 인식에 진화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이제까지 그 시대의 양식이란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올바르게 훌륭한 방법이기에 때문에 당연히 채택되어야만 한다는 신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성에 의한 완전한 진보가 신뢰되었다.

이 시대에 '진보적'이란 단어가 '이롭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도덕적인 함축성을 갖게 되었으며, 미 개념은 '사회적 유용성'의 개념과 결합하게 되었다. A. Shaftsbury는 "누가 이익이나 유리한 점은 물론 가장 진실 되고 본질적이며 가장 자연적으로 감동을 주고 가장 큰 즐거움을 지니고 있는 내향적인 미를 끊임없이 상기하지 않고서 외향적인 미를 존경할 수 있는가?"¹²⁾라고 질문함으로써 형태의 미나 미학적인 미의 위치를 도덕적인 미에 비하여 열등한 위치에 두었다. Shaftsbury의 영향을 받은 Hutcheson은 미를 절대적인 미와 상대적인 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절대적인 미의 기본 조건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의 원리인 반면에 상대적인 미는 주로 필요성에의 적응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는 기계에도 건축이나 그 밖의 예술형식과 똑같이 예술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봄으로써, 기계의 효율성이라는 원리를 미의 원리로 승화시킨 최초의 미학자 중 한사람이었다.¹³⁾ G. Berkeley와 D. Hume에 이르면 효율성의 미는 극단적으로 강조되는데 Berkeley는 『Alciphron』(1732)에서 모든 미는 그 목적과 용도에 유용한지의 여부에 의존한다고 했고¹⁴⁾, Hume은 『인생론(Treatise of Human Nature)』(1739~40)에서 무수한 인간적 산물의 미는 그 목적에의 적합성에 비례하여 아름답다고 했다.¹⁵⁾ Hutcheson, Berkeley, 그리고 Hume과 같은 사상가들에게 사회에 대한 유용성이 예술작품을 판단하는데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는데, 이들의 입장은 의도하는 목적을 생산해내는 데서 어떤 방식이나 기계가 갖는 효율성이야말로 전체 대상물에 미를 부여해준다는 것이었다.

위의 사상가들이 언급하는 미의 영역은 고대의 Socrates 이래 미의 한 변화형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는 적합성(aptness)을 의미하는데, Xenophone의 『회상기 (Memorabilia)』에 따르면 Socrates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과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면서 실용물품의 경우에는 적합성-합목적성-의 미가 주된 관심사임을 밝혔다. 르네상스기에 적합성은 형식미에 대한 편향으로 부차적인 개념이었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예술의 도덕성과 유용성이 논의되고 찬미되면서 실용적인 물품의 독특한 미를 의미하게 되었다.¹⁶⁾

한편, William Hogarth는 『미의 분석 (Analysis of Beauty)』(1753)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은 로코코의 디자인을 암시하고 있으며, 반면에 단순성과 적합성은 새로운 경향의 전조(前兆)¹⁷⁾라고 밝힘으로써 다가오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18세기 역사 인식의 변화, 즉 진보 개념의 도입은 특정한 형태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을 파괴하였으며, 예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분야에서 '진보'는 '개선'의 의미로서 도덕적 함축성을 나타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신고전주의 미 개념은 유용성의 개념과 결합하게 되었고 고대이래 형식미와 더불어 '이중의 미'의 하나로 간주

되어 온 적합성의 미는 건축 등 실용적인 미의 범위에서 강조되었다. 요컨대 신고전주의 예술에서 전통에 대한 '개선'의 의미를 함축하는 진보성에 입각한 유용성, 실용성, 합목적성, 기계의 효율성, 구조적 진실에 입각한 단순성 등은 현실적인 만족에 의한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곧 미로 환원되었다.

3. 사회관

18세기 사상가들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종교와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우리와 더불어 태어난 법'인 천부(天賦)의 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다.¹⁸⁾ 이를 위해 이미 생성된 전통과 권위를 단순히 고찰하는 대신 가장 오래된 사상의 보배 즉, 고대 사상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꾀했다. 이러한 면에서 계몽철학은 전통과 권위에 맞서서 싸우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측면과 더불어 언제나 고대 사상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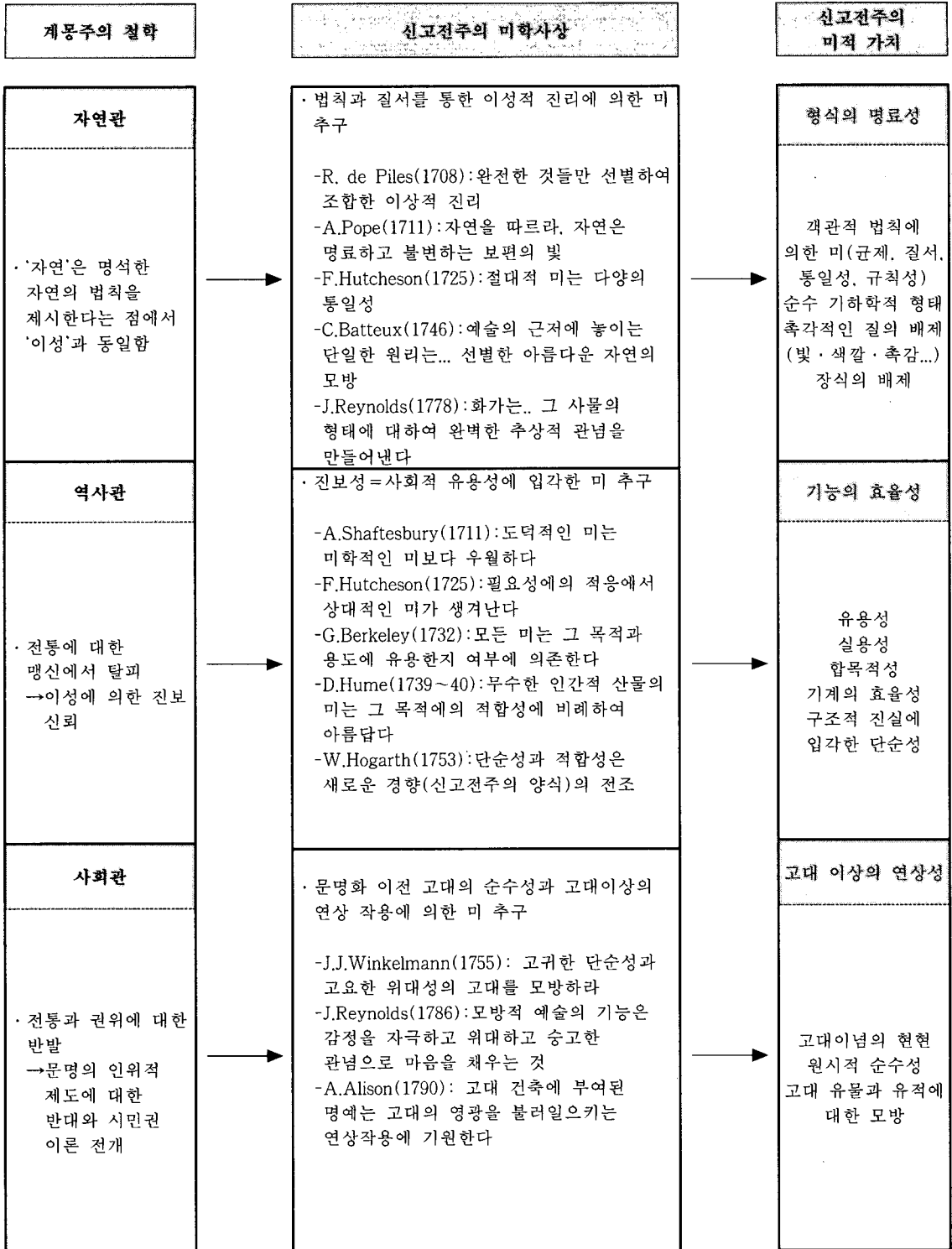
특히, J. J. Rousseau는 『학예론(Discours sur les science et les arts)』(1749)에서 사회 속에서 생겨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회형식들의 모든 명예와 짐에 대해 통렬히 비판을 가한 다음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계몽주의 사상가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정치와 도덕의 연계를 중시했고, 마침내 『사회 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에서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민중을 주권자로 서술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법률이 권위에 대한 복종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반대하고 고대의 원칙이었던 도덕적 자유의 부활을 주장했다.¹⁹⁾

이와 같은 시민권 이론의 전개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주의는 정치체제의 표본으로 신뢰되었고, 프랑스 혁명시대에 고전주의는 로마적 시민 덕목과 공화주의적 자유이념 등을 포함하는 혁명의 에토스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양식으로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고대를 연상시키는 모방적 예술이 대두되었는데, Reynolds는 1786년 행한 강의에서 모방적 예술의 기능을 '감정'을 자극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관념'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가 성(城)이 고대의 습관과 기

사도의 사상과 연합하여 즐거움을 준다고 설명했던 바와 같이²⁰⁾, 미학적으로 고대에 대한 모방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관심이기 보다 마음속에 그려지는 고대의 '이상'에 대한 연상작용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A. Alison도 『취미의 본질과 법칙(Essays on the Nature and Principles of Taste)』(1790)에서 "그것이 어떠한 계층이든, 나라든, 혹은 시기이든 기간에 고대 건축은 장점의 평가에 있어서 그것이 번영했던 나라의 역사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²¹⁾ 라고 언급함으로써, 고대건축에 부여된 명예가 대부분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연상작용에 기원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고대를 연상시키는 '상상력'은 신고전주의 예술의 또 다른 특징이 된다. Winckelmann이 『그리스 미술 모방론』(1755)에서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성의 고대를 모방하라"²²⁾고 주장한 것처럼 고대에 대한 모방은 단순히 고대인들의 작품에 대한 모방이기보다 그를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고대 이념을 현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신고전주의 미학이론은 Decartes의 합리론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었고, 근본적으로 계몽주의 철학에서 상상력은 이성의 교란을 초래하는 오류의 원천으로, 상상력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인간정신에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착란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모든 철학적 비판의 최고 목표 중 하나는 상상력을 신중하게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상력을 예술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술의 부정에 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출발이 아닐 수 없었으며, 특히 신고전주의의 고대에 대한 존경심과 전통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즉 신고전주의 예술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되지는 않았지만 고대를 사상적 근원과 이상적 원형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태도에서 고대의 세계로 안내하는 연상적인 미를 추구하며, 예술 작품을 통하여 연상되는 고대 세계의 자유와 평등을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 18-19세기 계몽주의 철학을 반영한 신고전주의 미학사상과 미적 가치

이상에서 살펴 본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신고전주의의 미적 가치를 도출하면 크게 세 가지로 형식의 명료성, 기능의 효율성, 그리고 고대 이상의 연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첫째, 형식의 명료성은 객관적 법칙에 의해 세부들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질서 지우려는 기본 경향으로 형식적 통일성과 엄밀한 논리적 집중으로 구현된다. 신고전주의 시대에 과학적 도구로 여겨지던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자기 규정적 특성과 객관적 미의 법칙, 감각적인 질의 배제를 통해 모호함의 반대로서 명료성을 추구한다.

둘째, 기능의 효율성은 절대적 질서 및 형식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며, 이러한 점에서 유용성, 실용성,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기계의 효율성과 구조적 진실에 입각한 단순성을 미로 인정한다.

셋째, 고대 이상의 연상성은 예술에 정신적인 것이 내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고대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고대의 유물과 유적을 모방하는 형태로서 고대 사상의 현현과 잃어버린 원시(原始)의 순수성을 추구한다.

Ⅲ. 18~19세기 건축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

새로운 건물 유형의 창조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문화적 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에서 변화하는 접근법은 인간 사고와 태도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²³⁾ 특히, 18세기에 들어 건축은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인식체계의 영향으로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가진 과도한 장식적인 면이 배제되고, '신고전주의'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본 장에서는 시대의 정신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공유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징을 갖는 건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복식에 대한 분석에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1. 형식의 명료성

18세기 중반이후 프랑스의 E. L. Boullée와 C. N. Ledoux와 같은 독창적인 건축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Decartes적인 순수기하학적 형태의 건축 형식이 제시되었다.

Boullée는 건축이 반드시 '자연'에 근거해야 하며 이때 '자연'이란 건축적 문맥에서는 바로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믿었다. 그는 기술과 기능에 대한 관심보다는 형태의 순수성을 주된 관심으로 삼았으며, 로마 건축에서 대칭의 강조와 구심점, 강한 내향성, 피라밋 모양의 특징에 따른 위계적 취급, 피라밋과 입방체 및 구 같은 이상적 입체의 사용 등 건축적 기념비주의(monumentalism)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여 극적인 관계를 갖는 순수 기하학적 매스로 구성된 건축을 제시했다. 그의 추상적 기념물 중 가장 유명한 1784년 작 '아이작 뉴턴 기념관(Cenotaph for Issac Newton)'은 500feet 지름의 거대한 구(球)형태로 당시의 재료나 기술로는 건축 불가능한 것들이었으며 도면작업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다음 건축 세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신고전주의 건축에 공헌했다.²⁴⁾

Boullée는 당시 가장 혁신적인 건축가 중 하나였던 Ledoux가 만들어낸 새로운 건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Ledoux 역시 입방체와 구체의 극적인 효과를 탐구했다. 그의 작품은 순수 기하학적 형상의 조화를 통해 과도한 장식적 꾸밈으로 인한 모호함을 제거하고 기하학적 체계의 똑바름과 솔직성을 강조했다. 그의 건축이 장식적 요소를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미건조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요소를 완전하게 병렬 배치함으로써 강한 대조를 얻을 수 있었다.²⁵⁾ <그림 2>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Ledoux는 '피라밋 모양의 구성법칙'을 통하여 견고함과 상징적 힘을 건물에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상징적 힘은 머리가 몸통 위에 있다는 것과 비교되었다. 또한 '비례의 법칙'을 통하여 건물에 통일성과 엄격한 대칭성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조의 법칙'을 통하여 거칠게 다듬은 열주와 평평한 벽, 입체와 원주, 장방형과 구형 같은 요소를 이용하여 수직성과 수평성을 서로 대

조시킴으로서 극적 효과와 양식적 독창성을 형성했다.

영국의 John Soane도 기하학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정상적인 고전 건축의 어휘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본질적인 미는 원, 다각형, 정방형, 평행사변형, 입방체, 직방체 등과 같이 특정의 형태나 비례를 아름다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⁶⁾ 프랑스 건축가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대담한 방법으로 시도했던 반면, Soane은 고전적 요소들을 추상화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고 이들의 새로운 조합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묘사하였다.

이상의 건축가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순수기하학적인 형태 구성을 통한 건축의 형태적 의미 전달에 있다. 그들이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에 매력을 느낀 것은 그것의 규칙적이며 단순 명료함이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신고전주의자들에게 기하학적 형태란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의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 하에서 Boullée, Ledoux, 그리고 Soane 등이 추구하였던 원시 기하학의 형태로 환원된 형태와 엄격하게 제어된 순수한 외관은 그들의 의도가 건축을 통하여 자연의 질서에 내재된 합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그들은 우주적 질서 속에 있는 자연의 특성으로 상징된 순수 기하학을 통하여 자연이 가진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질서들을 통합하고자 했다.

2. 기능의 효율성

J. Summerson에 의하면²⁷⁾ 신고전주의의 경향으로 1790년대 영국과 프랑스에 소규모 주택의 유행이 나타났다. 소규모 주택은 Laugier의 '원시 오두막'을 느끼게 하는 합리적인 설계로서 농촌 사람들의 요구에 기초한 엄격하게 기능적인 주택이었다. 즉, 예술 작업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중시되어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결과물이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영국의 Dorset에 있는 Milton Abbas (1774~80)인데, 그곳에는 창문 3개 넓이의 초가 지붕을 가진 평범한 집들이 긴 구릉을 따라 같은 크

기로 늘어서 있다. Milton Abbas는 소작인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생활에 유익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규모 주택은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은퇴 후 적절한 휴식처로서 소규모 주택을 선호했으므로, 빌라와 같은 성격으로 발전되었다. 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Joseph Gandy는 소규모 주택에는 획일성(uniformity)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고 편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⁸⁾ <그림 3>과 같은 소규모 주택의 유행은 건축의 영역을 기념비적인 공공건물과 규모가 큰 개인 건축물에 한정되었던 상태에서 보다 실제적인 목적의 실용성이 중시되는 넓은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프랑스 혁명 이후 건축의 실용성은 더욱 강조되었는데, 새로운 공화 정부에 의해 건축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탄생된 폴리테크닉의 교수로 임명된 J. N. L. Durand은 건축가들이 독점적으로 건축물의 기능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처음으로 건축에서 미적인 판정 기준을 포기했다. 그에게 있어서 기능과 구조는 두 가지 필수적인 건축사항이었으며, 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즉, 구조는 강하고 단단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또한 기능적으로 안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구조적 안전과 기능적 안락의 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은 단순성과 규칙성을 지녀야만 했으므로, 그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성취하기 위해서 벽, 기둥, 볼트 등의 구조 요소들을 표준화하려고 했다. 표준화된 구조 요소들은 격자 계획에 의한 구조적 사고에 의해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완성되었다.²⁹⁾

이상에서 건축에서 기능의 효율성은 결국 선택된 재료들의 정확한 물량을 경제적으로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적소에 위치시킴으로써 견고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고대 이상의 연상성

P. Collins에 의하면³⁰⁾ 신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 복고주의 영향력의 원천은 '공화주의적 단순성(republican simplicity)'의 제공에 있다. 1758년 Goguet는 그의 저서 『법, 예술, 그리고 과학의 기원

(Origin of the Law, Arts and Science)에서 '외부의 단순함은 공화주의자의 미덕이며 부속물이다'라고 말하였고, 미국에서 혁명 이후 신고전주의 양식이 확산된 것은 이를 입증한다.

년 J. D. Leroy의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의 유적 (Ruins of the Most Beautiful Monuments in Greece)에 이어 Stuart와 Revett가 아테네 답사 후 정확히 측정된 그리스 건축물의 도판이 수록된 『아테네의 고적 (Antiquities of Athens) (1762)이라는 책을 간행하면서, 1760년경 건축가들은 고대 건축의 오더와 디테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고 1784년부터는 비교적 정확한 Parthenon의 상세도를 어디에서나 구해볼 수 있었다. 당시 문화적으로 박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는 과학, 철학, 수학, 문학, 민주주의 등 문화의 모든 좋은 점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으므로 T. Hamilton이 설계한 에딘버러(Edinburgh)에 있는 고등학교가 세워진 1825년 경에는 Acropolis에 있는 도릭(Doric) 사원들의 형태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공공건물에서 자주 사용되게 되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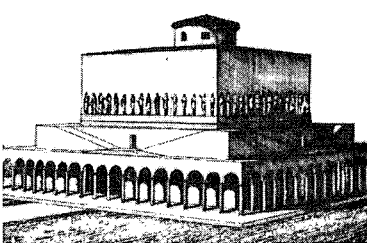
그런데 신고전주의 양식은 항상, 박물관에서 가져온 견본처럼 진기한 것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Hamilton이 설계한 <그림 4>의 Edinburgh 고등학교는 실제 건물 구성에 '불필요한' 포티코(portico)와 열주랑과 같은 고전적 양식을 전면부에 차용하여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양상은 Smirk이 설계한 대영박물관에도 나타난다. 즉, 포티코와 열주랑은 건물의 내부기능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고대를 연상시키는 보편적인 외피를 창조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 혁명 이후 Napoleon 시대에는 과거 로마 건축이 지니고 있던 웅장함과 다양함을 표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 하에서 로마시대 공화주의의 위대성을 정치체제의 표본으로 받아들여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³²⁾

요컨대 신고전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고대 양식에 대한 모방은 고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형태가 구조 또는 기능과 무관하게 장식적 요소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18~19세기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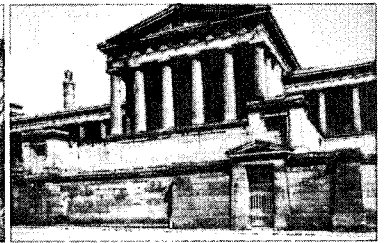
신고전주의 예술양식이 그 시대의 복식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18세기 말엽 신고전주의 예술가들이 급진적으로 고대의 형태 속에서 근대적인 이상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복식에서도 정교하고 장식적인 귀족적 스타일의 로코코 양식은 쇠퇴하고 표면적인 암시보다는 기본적 형태의 근원으로서 고대성을 사용하고자 했다. 특히,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복식의 새로운 전환기라 볼 수 있는데, 복식 사학자인 Laver에 의하면³³⁾ 이는 명백한 근대 복식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하여 왕의 권리가 시민들의 권리로 이양된 것처럼 남성복은 화려한 장식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거의 변화 없이 계승되고 있는 수수한 수트(suit)가 우월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복도 파니에(pannier)와 코르셋(corset)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의복 형태와



<그림 2> 기하학적 체계를 강조한 주거 계획, Ledoux, 1780년경



<그림 3> 실용적 구조의 소규모 주택, 1780.



<그림 4> 고대 양식을 모방한 건축, 1825.

정교한 장식이 포기되고 고대 그리스 복식과 같이 자연스러운 복식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역사적 기간을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전주의적 복식양식은 대략 1780년부터 1820년까지 지배적 양식이었는데, 전 시대의 정교하고 풍부한 장식적 복식에 비해 인체를 존중하고 단순함을 지향한다는 외적 특징을 나타낸다.

한편, 복식은 타 예술장르와 달리 인체미라는 독특한 미적 가치를 표현한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미학 사상을 통하여 이에 대한 미적 가치를 도출할 수는 없었지만 인체미는 복식의 미적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이므로 신고전주의 복식에 표현된 인체미에 대한 고찰을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

1. 형식의 명료성

Ledoux가 고대의 건축물에서 건축의 장식적 요소보다는 견고한 형태 속에 연관된 단순성을 차용하여 순수 기하학의 형태로 환원된 건축을 추구하였듯이 의복을 착용한 인물에게 있어, 이와 유사한 기하학적 명료함이 남·여 모두의 복식에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의 복식은 고대로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대 이전의 복식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신체를 단순히 보조하거나 또는 신체의 해부학적 진실과 관계없는 경직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건강하게 균형 잡힌 인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복식으로서 신체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사각형 또는 반원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천을 신체에 두르는 유동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르네상스의 복식에서는 이와 반대로 스커트의 버팀대(stays), 코르셋(corset), 그리고 러프(ruff) 등을 이용하여 인체를 왜곡하고 경직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권위와 위엄, 부 등을 표출하고자 했다.

한편, 신고전주의 복식은 고대의 완벽한 신체에 대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복식을 구조화시켰고, 따라서 복식을 착용함에 의하여 신체의 기하학적 명료함이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이는 건축에서 Ledoux가 원, 사각형과 같은 순수 기하학적 형태로

건축의 형태를 환원시킴으로써 명료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고대 누드 조각의 표현을 토대로 신체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가 재인식되었다. 명확한 윤곽을 지닌 팔, 다리, 머리, 근육 등의 구조와 조화되는 복부, 엉덩이, 가슴 등의 구조가 선천적 구조의 진실로서 채택되어졌다. 이와 같이 재발견된 “자연적” 해부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복의 재단사들은 3차원적으로 신체를 완벽하게 둘러 싸고자하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광택이 없는 단순한 울, 린넨, 가죽 등의 소재를 정교하게 자르고 재봉 선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표면적인 화려함이 아닌 본질적인 질감과 구성으로 의상의 미적 흥미를 자아내었다. 단순한 형태 자체로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하여 거의 인지할 수 없는 패드와 굴곡진 재봉선, 열처리 등으로 둔탁한 의상을 균형 잡힌 의상으로 만들었고, 완벽하게 재단된 컬러와 평평한 라펠 등 정교한 선은 신체를 존중하는 곡선에 기초한 디자인을 형성하였다.³⁴⁾

여성의 복식도 스커트의 버팀대(stays)와 코르셋(corset)을 제거하고 수직적인 실루엣, 단순한 면 소재와 순수한 흰색의 사용, 그리고 장식의 배제로 형태의 구성원리가 명확하게 강조되었고, <그림 5>와 같이 기하학적 명료함이 강조된 인체 우선형의 테일러드 재킷이 착용되었다.³⁵⁾ 이와 같은 복식에서는 세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 조화로서의 실루엣이 중시되었는데,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적인 대비 효과로서 명료한 형식을 더욱 강조하였다. 구조적인 상체와 그 아래 비구조적인 유연한 스커트의 대비와, 전체적으로 수직적인 실루엣에서 반구형태의 가슴을 분리하여 강조하는 가슴 바로 아래 위치한 허리선의 구조가 특이한 극적 효과를 산출해내었다.

이상의 고찰에서 신고전주의 복식에 나타난 형식의 명료성은 인체의 해부학적 진실에 입각한 사실성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불분명한 인체의 윤곽선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대신에 인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하여 인체의 여러 부분을 구조적인 재단으로 비례와 균형의 조화 속

에 재구성하고 단순한 단위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광택 없는 단순한 소재와 무언의 단색의 사용으로 부적절한 심미적 혼란을 방지한다. 요컨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과 장식이 아닌 명확한 선의 구성으로 고도의 미학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복식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복식은 기하학적 명료성과 결부된 합리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명료한 형식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평등의 척도가 되었고, 장기적으로 '복식의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2. 기능의 효율성

건축에서 적합성은 미학적 측면보다 기능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접근으로 표명되었다. 복식에서도 인간의 삶과 현실에 대해 적합한 것은 건강에 좋은 것, 활동성을 보장하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복식으로 나타났다. 신고전주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왕과 귀족은 화려하고 정교한 치장으로 그들의 신분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들의 의복이 실용적이고 수수한 면 소재와 흰색으로 통일되고 장식이 절제된 간소한 복식으로 바뀌면서 사회적 격식의 문제보다는 복식의 순수하게 기능적인 효율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에서부터 남성복과 여성복은 모두 전원생활에 적합하도록 허식적인 치장을 배제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영국의 귀족들은 궁정에 드나들기보다 그들 소유의 대지에서 승마와 같은 활동적인 일을 하는 전원적인 삶을 선호하였는데, 전원적인 삶에 적합하도록 복식에서 자수와 레이스(lace), 러플(ruffle) 등의 장식을 포기하고 더욱 단순한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여성의 인체를 구속했던 코르셋이 배제되었고,³⁶⁾ 부드러운 주름이 잡힌 스커트는 버팀대 대신 여러 겹의 페티코트(petticoat)와 함께 착용되었다. 스커트의 길이도 활동에 편리하도록 발목 바로 위의 길이로 짧아졌다.³⁷⁾ 남성복에 있어서도 시골에 거주하는 영국 귀족들은 수수한 소재를 이용하여 과장되지 않은 간소한 스타일을 취함으로써 자연과 시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³⁸⁾

프랑스 혁명 이후 영국은 정치적 자유를 먼저 획득한 나라로서 추앙되었고, '영국에 대한 열풍(anglomania)'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궁중에서 형식적인 댄스를 일과로 삼았던 프랑스의 상류사회에 영국 상류 사회의 전원적인 삶은 활기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다.³⁹⁾ 정치적·사회적 자유로 인식되는 영국에 대한 열풍으로 영국의 시골 의상이 도시의 공식적인 의상으로 착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패션은 파리에서 점차 확산되어 인위적인 정교함 대신 '영국풍(mode a l'anglaise)'이라 불리는 간소하고 편안한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림 6>의 영국풍 슈미즈는 여유 있는 맞음새의 소매와 조절이 가능한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 편안해 보이며, 바디스와 스커트에 잡힌 부드러운 주름으로 활동성을 보장한다. 이와 같이 실용적이고 간소화되어 가는 복식의 추세를 *Cabinet des Modes*(1790, 11)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순수해지고 있다. 무절제와 사치는 사라지고 있다."⁴⁰⁾ 여기에서 순수는 건축에서 Laugier가 주장했던 '원시 오두막'과 같이 순수하게 기능에 입각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신고전주의 복식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은 귀족적인 허식을 거부하고 인체의 활동성에 적합한 '구조적'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헐렁하고, 단순하며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의복으로 인체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는 자유롭고 편안한 특성의 형식 원리를 적용하여 여분의 주름, 넉넉한 품, 헐렁한 바지통, 조절이 가능한 허리띠, 짧은 옷 길이 등의 구조적인 고려가 표현되었고 전체적인 형태가 간소화되었다. 이와 같이 간소화된 형태는 건축에서 발견되었던 구성 요소의 표준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와 같은 맥락에서 20세기에 기성복의 대량생산에 적합한 형태로의 발전을 예고한다.

3. 고대 이상의 연상성

고전적 형태의 재현을 통해 고대의 문화에 대한 숭배와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건축에

서 그리스 신전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건축물이 나타났듯이 복식에서도 그리스 조각에 표현된 그리스 복식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794년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인 J. L. David와 몇몇 예술가들은 새로운 공화정 시대에 알맞은 남성복을 다른 모든 분야에서 시도되었던 고대에 대한 모방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키톤(chiton)과 로마의 토가(toga)와 같은 고대 복식을 모방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모두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남성복에 있어서 그리스의 키톤과 로마의 토가는 18세기 도시 생활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혁명적인 상황과도 모순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⁴¹⁾ 여성의 복식에서도 화가들은 고대의 문화에 대한 신뢰를 배경으로 지적인 여성을 묘사할 때 고대의 고전적인 의상을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⁴²⁾ 그러나 남성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복에서도 이와 같은 고대복의 모방은 화가들의 표현으로 제한되었을 뿐, 실생활에서 고대복의 형식이 착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형식이 현실적인 백락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고대의 이념적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공적 영역의 건축과 달리, 복식에서 일상생활에의 적합성과 개인의 표현은 고대 이상의 연상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상징적 가치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인체미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고대복을 연상시키는 슈미즈(chemise)는 고대복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형태와 목적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점은 없다. 여성의 신체를 감쌌으로써 정숙성을 강조했던 고대복과 달리, 신고전주의의 슈미즈는 Hollander⁴³⁾와 Laver⁴⁴⁾와 같은 복식학자들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고풍스럽다는 구실 하에 오히려 여성의 인체를 노출하고 자연스러운 인체미에 의한 성적 관능성을 추구한다. 즉, 신고전주의 시대에 고대복의 형식이 유행

한 이유는 고대 이상의 연상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강조라기보다 인체미의 노출과 이를 통한 관능성의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관능성은 어느 시대에서나 추구되던 복식의 미적 가치이지만 신고전주의 복식에 표현된 관능성은 고대 이래 최초로 인체미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인체미와 관련된 신고전주의 복식의 미적 가치로서 '인체미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은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신고전주의 시대 Rousseau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은 인체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 욕망의 근원인 인체는 신이 부여한 것이며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거나 제재되어서는 안 되고 본래 모습대로 두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⁴⁵⁾ 따라서 인위적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은 해방된 자유방임의 인체가 아름답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나체가 아니면서 인체의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과시할 수 있는 의상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⁴⁶⁾ 더불어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고대복과 같이 인체의 자연성을 강조한 복식형태에 관심을 갖게 했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여성복 변화의 동인이 되는 관능성의 추구는 '고풍스러운 것'이라는 구실 아래 정당성을 획득한 자연스러운 인체의 노출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슈미즈는 <그림 7>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고대복의 단서를 제공하지만, 여성의 팔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반투명의 소재로 만들어진 직선적인 실루엣의 가슴 바로 아래 위치한 허리선으로 가슴의 굴곡을 거의 그대로 드러내었다. 즉, 고대복의 인체들은 은폐하는 육중한 양감의 드레이퍼리 대신에 상체와 스커트가 분리되어 상체는 몸에 딱 맞고, 스커트 부분 또한 직선적인 날씬한 실루엣으로 긴 다리의 곡선을 노출시킴으로서 인체미의 자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1795년 자코뱅(Jacobin)당이 무너진 후 압박에서 해방된 여성들은 점차 '벗는'패션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시대에 여성들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해방되었으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댄스에 열광했다. 집정내각 시대에는 '댄스를 위한 공공장소(bals publics)'가 성행했으며, 여성들이 새로운 패션을 시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여성들은 사교 모임에서의 에티켓과 단순히 좋은 취향에서 벗어나 패션의 자연스러움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였고, 신체를 거의 나체에 가깝게 노출시켰다.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도 착용하지 않았다. 유행에 민감한 숙녀는 비단 트리코(tricot)만을 입고 그 위에 속이 비치는 속옷 같은 슈미즈를 입었다. 의상의 옆은 절개되어 무릎 이상이 노출되었다. 목둘레 또한 가슴까지 깊게 파여서 거의 가슴이 노출될 정도로 대담했으며, 대부분 여성들의 복장은 정숙함과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다.⁴⁷⁾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누드를 암시하는 특성은 남녀의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다만, 그리스 시대 이후 남성이 누드의 표현대상이었으나, 신고전주의 시대부터는 여성 누드에서만 미를 동경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되었으므로 여성복은 남성복 보다 직접적인 인체의 노출이 시도되었고, 남성의 수트는 인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도 관능성보다는 이성에 의한 합리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기능의 효율성에 입각한 경향으로 여겨졌다.

이상에서 고찰한 18~19세기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림 5>
기하학적
명료성의 강조,
1917



<그림 6> 활동성과 편안함의
고려, 1792



<그림 7>
인체의 자연성
강조, 1811







남성복에서도 의복으로 완벽하게 몸에 감싸더라도 피부의 매끄러움을 암시하는 흐릿한 질감과 자연 그대로의 흐릿한 색조의 소재를 이용한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몸에 밀착된 실루엣으로 누드를 암시함으로써 신고전주의적 관능미를 추구하였다.⁴⁸⁾

이상에서 신고전주의 복식에 나타난 인체미와 관련된 미적 가치는 인체미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임을 알 수 있다. 의복을 입었더라도 얇은 직물, 흐릿한 색상, 몸에 밀착된 실루엣으로 자연스러운

V. 결론

18~19세기 신고전주의가 대두되었던 계몽철학 및 신고전주의 미학 사상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파악된 신고전주의의 미적 가치는 첫째, 예술에서 이성에 입각한 합리주의와 과학적 사고를 추구하여 명료한 법칙에 의한 객관적 미개념을 특성으로 하는 형식의 명료성, 둘째, 실용적이고 합목적성에 입각한 적합성의 미개념을 특성으로 하는 기능의 효율성, 그리고 셋째, 고대 양식에 대한 모방을 통한

<표 1> 18~19세기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

신고전주의 미적 가치	형식의 명료성		기능의 효율성		고대 이상의 연상성		인체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
	장르	특징	건축	복식	건축	복식	
외적 형식	<p>장식이 엄격하게 제어된 단순함 객관적 미의 원리 기하학적 형태와 극적 대비효과에 의한 명료성 강조</p>		<p>순수하게 기능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단순함 구조적 측면에 대한 고려</p>		<p>고대 양식의 모방</p>		<p>자연적인 인체미의 관능성을 강조하는 구조적 형태 (딱맞는 실루엣, 반투명 소재)</p>
내적 의미	합리성	3차원의 기하학적 구성으로 인체의 형태를 고려한 인체 우선형	소규모 주택 구성 요소의 표준화와 규칙적인 배열 공학적 방법의 도입	전원생활에 적합한 복식 인체의 활동성을 고려한 구조 (주름, 여유있는 맞음새) 비형식적 복식 코르셋의 배제 실용적소재	신전 형태의 학교, 박물관	화가들과 혁명세력에 의해 고대 복 형태가 제안되었으나 실생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표적 형태							

여 고대의 이념을 현현하고자 하는 고대 이상의 연상성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토대로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고찰한 결과, 형식의 명료성의 미적 가치는 건축과 복식에서 조화, 균제, 대칭, 비례와 같은 객관적 미의 원리를 추구하고 장식이 엄격하게 제어된 순수한 외관에서 파악되었다. 건축에서 순수 기하학으

로 환원된 형태와 대조에 의한 극적 효과로 형태적 명료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이, 복식에서 인체의 해부학적 진실에 입각한 구조적인 형태는 신고전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합리성의 내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의 표현과 관련된 복식의 특성상 외관상의 지표 없이 순수한 형식의 명료성을 추구한 복식은 계급에 따른 구별을 제거하

여 평등성의 내적 의미를 나타냈다. 기능의 효율성의 미적 가치는 건축과 복식에서 순수하게 기능에 입각한 합리적·과학적 접근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더욱 유용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건축에서 소규모 주택, 구성요소의 표준화와 규칙적 배열, 공학적 방법의 도입 등으로 구조적인 견고성과 기능적인 안락의 조합에서 나아가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한 고려로 나타났다. 복식에서는 신체 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형태에 대한 고려로서 주름과 여유 있는 맞음새 등의 구조와 더불어 면과 같은 실용적인 소재가 사용되었고, 활동성과 실용성의 내적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복식은 여전히 기성복보다 맞춤복에 의존하고 있어 건축에서 나타난 표준화와 같은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고대 이상의 연상성의 미적 가치는 건축에서 고대 신전 형태의 건축을 통하여 나타났다. 기능 또는 현실적 맥락과 무관한 이러한 형태의 건축은 고대 이념의 현현이라는 내적 의미의 표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복식에서는 혁명의 개혁 세력과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고대복과 같은 형식이 제안되었을 뿐 18세기의 도시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착용되지는 않았다. 이는 복식이 건축과 달리 일상생활과 인간의 활동에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며 인간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시스템과 유행의 요구를 떠나 성립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한편, 복식에서 고대에 대한 연상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고대 사상과 결부되기보다는 인체미의 미적 가치와 관련되어 인체미의 자연성에 대한 노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고대가 사회·문화적으로 숭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대복과 유사하다는 구실 하에 금기시 되던 인체미의 자연성을 노출함으로써 관능성을 추구하였다. 관능성은 어느 시대에서나 추구되던 복식의 미적 가치이지만 신고전주의 복식에 표현된 관능성은 고대 이래 최초로 인체미의 자연성에 결합된 관능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체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형태이지만 인체를 감싸서 은닉하는 고대복과 달리

자연적인 인체미의 관능성을 강조하는 구조적 형태와 비치는 소재의 신고전주의 복식은 나체가 아니며 인체의 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과시함으로써 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복식형태였다.

이상에서 18~19세기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를 고찰한 결과, 건축에서는 형식의 명료성, 기능의 효율성, 고대 이상의 연상성의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복식에서는 사회·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표현하는 고대 이상의 연상성 대신에 인체의 자연성을 중시했던 사상과 관련되어 인체미의 자연성과 관능성의 결합이라는 미적 가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8~19세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대두된 신고전주의라는 양식의 미적 가치를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대패션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이 갖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고전주의 양식이 현대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고찰하면 현대패션을 이해하고 나아가 신고전주의 양식을 바탕으로 한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Cassirer, Ernst 저, 박완규 역 (1995). 계몽주의 철학. 민음사, p. 11.
- 2) 이성훈 (1998). 신고전주의 예술의 미학이론. 건축문화, 8805, p. 98.
- 3) 이종훈 저, 김영한, 임지현 편 (1995). 로맨티시즘,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p. 471.
- 4) Tartarkiewicz, W. 저, 이용대 역 (1998).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p. 343.
- 5) 김혜숙, 김혜련 (2003).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75.
- 6) Tartarkiewicz, W. (1998). 앞의 책, pp. 161~162.
- 7) 위의 책, p. 169에서 재인용.
- 8) 위의 책, pp. 346~347에서 재인용.
- 9) 竹内敏雄 저, 안영길 외 역 (2003).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pp. 52~55.
- 10) 윤미숙 (1991). E. Burke의 숭고와 미의 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11) 김혜숙, 김혜련 (2003). 앞의 책, p. 177.
- 12) de Zurko, E. R. 저, 윤재희 외 역 (1988). 기능주의 이론의 계보. 세진사, p. 87에서 재인용.
- 13) 위의 책, pp. 89~92.
- 14) 위의 책, p. 95.
- 15) 위의 책, p. 98.

- 16) Tartarkiewicz, W. (1998). 앞의 책, pp. 187~189.
- 17) de Zurko, E. R. (1988). 앞의 책, p. 101.
- 18) Cassirer, Ernst (1995). 앞의 책, pp. 313~314.
- 19) Wokler, Robert 저, 이종인 역 (2001). 루소. 시공사, pp. 41~43.
- 20) de Zurko, E. R. (1988). 앞의 책, p. 114.
- 21) 위의 책, p. 32.
- 22) Copleston, S. J. F. (1985). *A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Image Book, p. 116.
- 23) Lesnikowski, W. G. 저, 박순관 외 역 (1995).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국제, p. 82.
- 24) Summerson, John 저, 정태용 역 (1993). 18세기 건축. 태림문화사, p. 111.
- 25) Lesnikowski, W. G. (1995). 앞의 책, p. 95.
- 26) de Zurko, E. R. (1988). 앞의 책, p. 126.
- 27) Summerson John (1993). 앞의 책, pp. 124~129.
- 28) de Zurko, E. R. (1988). 앞의 책, p. 124.
- 29) Lesnikowski, W. G. (1995). 앞의 책, pp. 105~106.
- 30) Collins, Peter 저, 이정수 외 역 (1989).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태림문화사, pp. 86~92.
- 31) Summerson, John 저, 조희철 외 역 (2002). 건축의 고전적 언어. 태림문화사, p. 102.
- 32) 이항렬 (1989). 신고전주의 건축의 발생적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9.
- 33) Laver, James (1937). *Taste and fashion*. London: George G. Harrap & Company Ltd., pp. 13~18.
- 34) Hollander, Anne 저, 채금석 역 (1996). 의복과 성. 경춘사, pp. 115~121.
- 35) von Boehn, Max 저, 천미수 역 (2000). 패션의 역사. 한길아트, p. 208.
- 36) Laver, James(1995).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 149.
- 37) Bigelow, Marybelle S. (1979). *Fashion in history*.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p. 211.
- 38) Hollander, Anne (1996). 앞의 책, p. 109.
- 39) McDowell, Colin (1997). *The man of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 46.
- 40) Steel, Valerie (1988). *Paris fashion: A cultur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Inc., p. 48에서 재인용.
- 41) Laver, James (1937). 앞의 책, p. 18.
- 42) Ribeiro, Aileen 저, Wilson E. 편 (1999). *Muses and mythology. defining dress*.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p. 104.
- 43) Hollander, Anne (1996). 앞의 책, p. 132.
- 44) Laver, James (1937). 앞의 책, pp. 20~21.
- 45)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교문사, p. 75.
- 46) Black, J. Anderson (1975). *A history of fashion*. New York: William & Co. Inc., p. 233.
- 47) Laver, James (1937). 앞의 책, pp. 20~21.
- 48) 채금석 (1996). 현대 남성수트의 변천과 미학적 특성. 복식, 30, p. 252.